



おおぞら

とも

大空のむこうのお友だち  
하늘 저편의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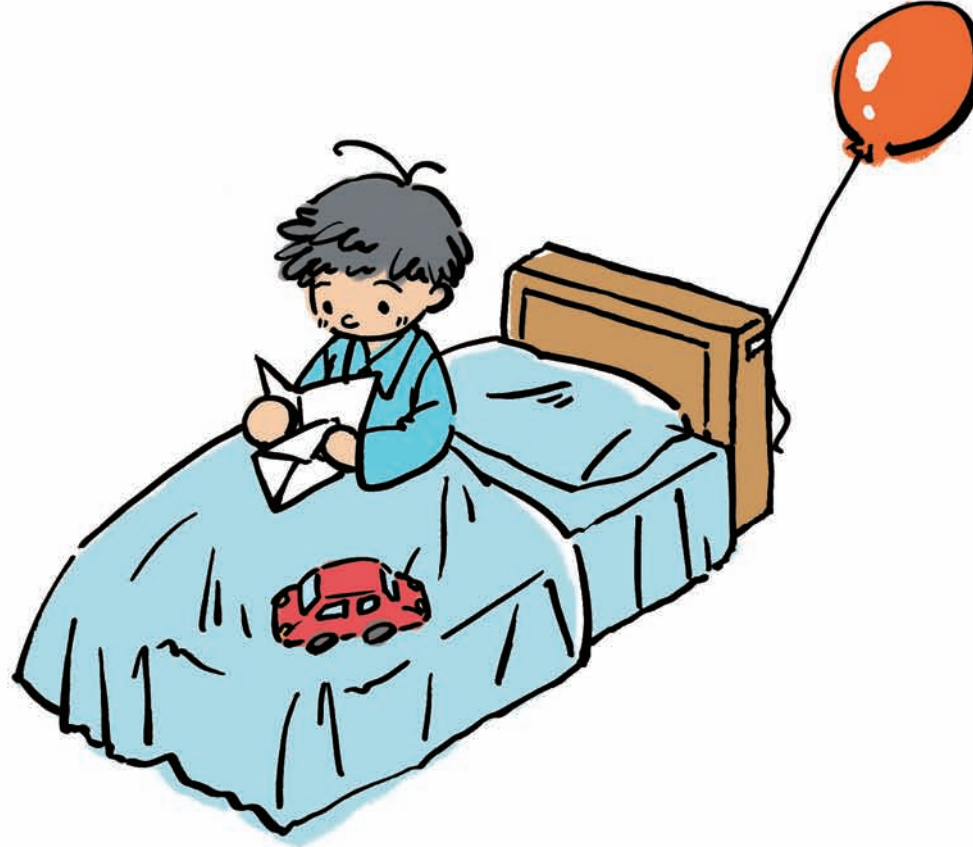
おおぞら とも  
大空のむこうのお友だち  
하늘 저편의 친구

ぶん にっぽんこく しゃだんほうじん とよおかせいねんかい ぎしよ だいかんみんこく ちよんじゆせいねんかい ぎしよ  
文：日本国 社団法人豊岡青年会議所・大韓民国 全州青年會議所

え 絵：ヤマネカズコ

문장 : 일본 사단법인 도요오카 청년회의소 · 대한민국 전주청년회의소

그림 : 야마네 카즈에



てっちゃんは、<sup>にっぽん</sup>日本のとよおかにすむ男の子。体が弱く、いつも家の中にいたので、友だちがあまりいませんでした。  
でも、いつも外のように教えてくれるコウノトリのコーちゃんとは、大のなかよしでした。  
「今日はいいものを見つけただ。」  
手紙のついた風船をもってきてくれました。

《大空のお空のお友だちへ。ぼくと友だちになってくれませんか。韓国のチョンジュより。チョルス。》

「ぼく、友だちになりたいな。」

「とどけてあげるよ。」

てっちゃんは、すぐにへんじを書きました。  
そして、コーちゃんは、大切な手紙をもって、大空へととびたちました。

일본 도요오카에 테츠야 라는 남자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테츠야는 몸이 약해 항상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테츠야 에게는 바깥세상 소식을 알려주는 '코우'라는 황새 친구가 있었어요. '코우' 가 말했어요. "오늘 굉장한 걸 발견했어~!!" 하며, 편지가 붙여진 풍선을 가져왔어요.

《하늘 저편의 친구에게. 나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래? -한국 전주에서 철수가-》

“나, 친구가 되고 싶은데... 코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테츠야, 그럼 편지를 써~! 내가 한국으로 전달해줄게!”

테츠야는 곧바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코우는 그 소중한 편지를 가지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どうしよう、たいへんだ。」

<sup>てがみ</sup>手紙をなくしてしまったコーちゃんのところに、カササギのカサちゃんがやってきました。

「どうしたの？」

<sup>たいせつ</sup><sup>てがみ</sup>「大切な手紙をなくしちゃったんだ。」

「ぼくもさがすのをてつだってあげる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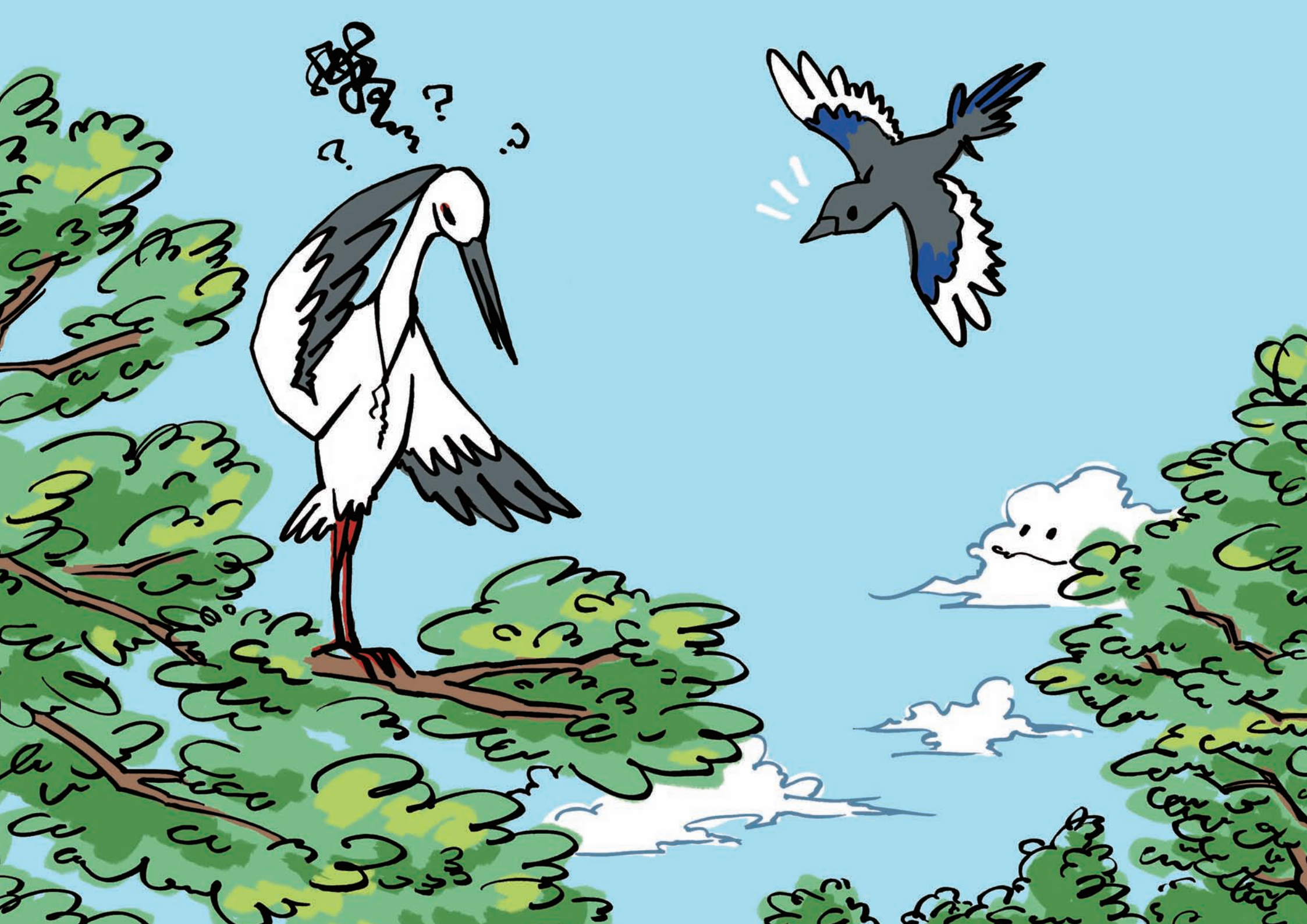
“어쩔잖아.. 큰일이야!”

코우는 갑작스러운 바람에 편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울고 있는 '코우' 곁으로 '까순이'라는 까치가 날아왔어요.

“무슨 일이니?”

“소중한 편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나도 찾는 걸 도와줄게. 우리 같이 찾아보자!”



코ーちゃんとカサちゃんは、木に引っかかっている手紙てがみをみつけました。

「ぼくのために、いっしょにさが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

「だってコーちゃんは、同じ地球おなじちきゅうにすむ友だちだもん！！」

コーちゃんはとてもうれしくなりました。

「よし、この手紙てがみをチョルスくんにとどけよう。」

「えっ！！チョルスくんって、ぼくの友だちだよ。」

コーちゃんとカサちゃんは、とてもおどろきました。

「今いまからつれていってあげるよ。」

‘코우’와 ‘까순이’는 나무에 걸려 있는 편지를 발견했어요.

“날 위해 같이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천만에~ 코우 너는 같은 지구에 사는 친구인걸~!”

‘코우’는 친구라는 말에 무척 기뻐어요.

“좋아! 얼른 이 편지를 철수에게 전해줘야지!”

“응?? 철수는 내 친구야~!”

‘코우’와 ‘까순이’는 무척 놀랐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チョルスくん、手紙<sup>てがみ</sup>をもってきたよ。」

「ぼくは、チョルスくんと友だち<sup>とも</sup>になりたいけど、体が弱<sup>からだよわ</sup>くて外<sup>そと</sup>に出れ<sup>で</sup>ないんだ。元氣<sup>げんき</sup>になったら会<sup>あ</sup>いたいね。  
日本<sup>にっぽん</sup>のとよおかより。てつや。≫

チョルスくんは、すぐにへんじ<sup>か</sup>を書きました。

「手紙<sup>てがみ</sup>とこのふくろを、てっちゃんにとどけてくれる？」

「いいよ。」

「ぼくもいっしょ<sup>い</sup>にいくよ。」カサちゃんは言いました。

“철수야, 편지 가져왔어~!”

«나는 테츠야 라고해~ 난 철수와 친구가 되고 싶지만 몸이 약해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건강해지면 언젠가 꼭 만나고 싶어! -일본 도요오카에서 테츠야가-»

철수는 바로 답장을 썼어요.

“편지랑 이 봉투를 테츠야에게 전해주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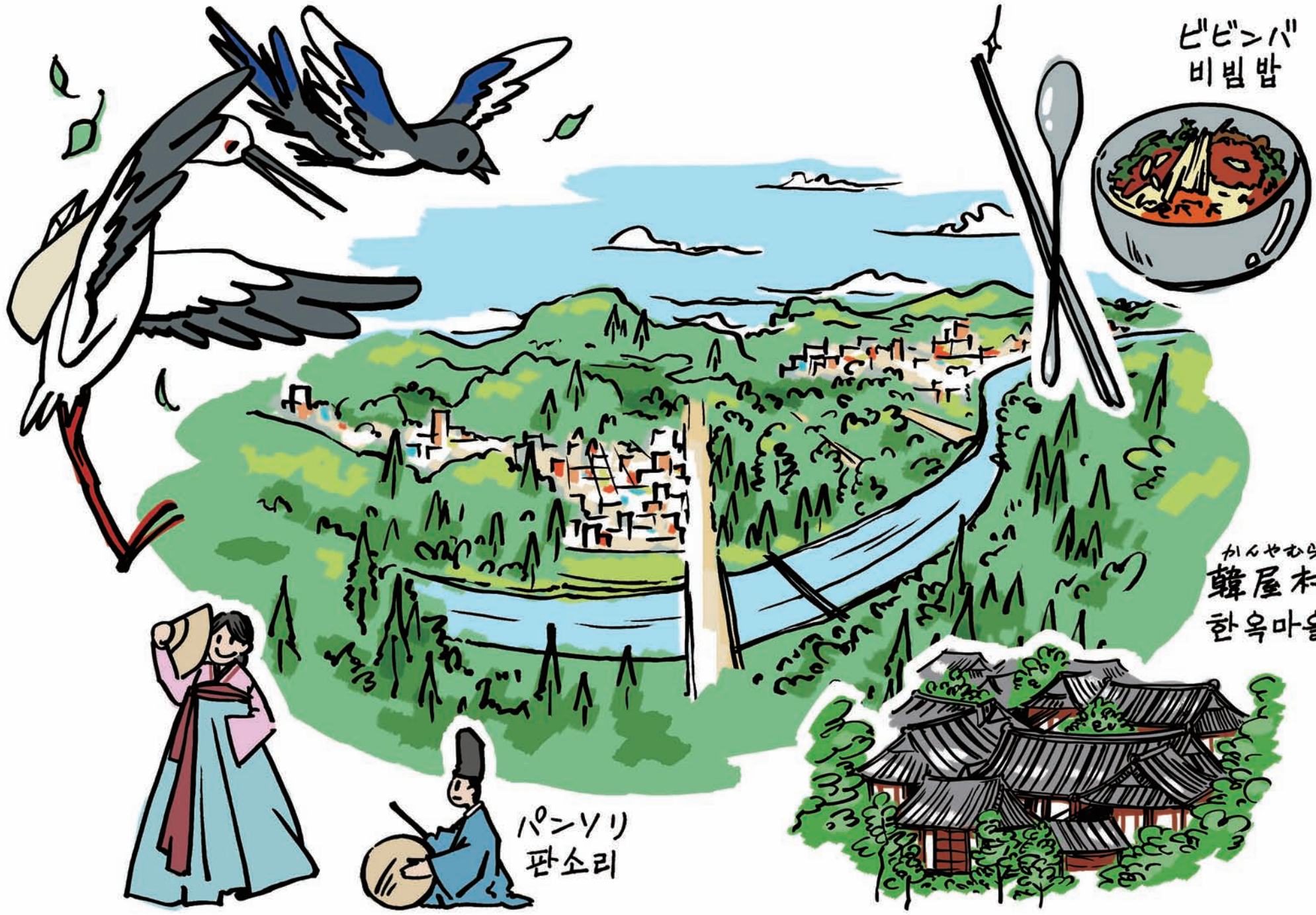
“그래 좋아!”

“나도 같이 갈게!” 까순이는 말했어요.



「そうだ、このすてきなまちをてっちゃんに<sup>おし</sup>教えてあげよう。」

“그래, 이 멋진 마을을 테츠야에게도 가르쳐주자!”



ビビンバ  
비빔밥

한옥마을  
韓屋村

판소리  
판소리

そら うみ あお  
空も海も青く、とてもきもちのいい天気でした。

チョンジュからとよおかまでの間、時間がたつのをわすれるくらい、楽しくすごしました。

「海があるからとても遠くにかんじるけど、思っていたよりずっと近いんだね。」

「本当にそうだね。あっ、あそこがてっちゃんの家だよ。」

하늘도 바다도 파란, 무척 기분 좋은 날씨였어요.

전주에서 도요오카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바다가 있으니깐 무척 멀게 느껴졌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깝구나~”

“정말 그럴네~? 아, 저기가 테츠야 집이야.”









「わあ、みどりがいっぱいできれいだね。」カサちゃんは心こころからい言いました。

“와, 초록빛이 가득해서 정말 아름답구나~!” 까순이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かんなべ しょう  
神鍋スキー場  
칸나베스키장



ぼたけ たんとうちや  
チューリップ畑(但東町)  
튤립밭 (탄토초)



いずし  
出石そば  
이즈시소바



きのさきかんせん  
城崎温泉  
키노사끼온천



たけのはま  
竹野浜  
타케노바닷가



げんばどう  
玄武洞  
겐부도우

「てっちゃん、<sup>きょう</sup>今日は<sup>げんき</sup>元気そうだね。びょうきはなおったのかい？」そこにたまたまいたおじいさんがたずねました。  
「<sup>かんこく</sup>韓国のお友だちにもらったくすりのおかげで、<sup>げんき</sup>元気になったんだ！！」  
「<sup>かんこく</sup>韓国のお友だち？じつはこのきれいなまちには、こんなむかしばなしがあるんだよ。」

「むかしむかし、とよおかのまちは、<sup>おお</sup>大きな<sup>いし</sup>石が<sup>まるやまがわ</sup>円山川をふさいでいたので、いつも<sup>おおみず</sup>大水でこまっていました。  
そんな<sup>とき</sup>時あらわれた<sup>かんこく</sup>韓国の<sup>おうじ</sup>王子アメノヒボコは、  
みんなと<sup>ちから</sup>力を<sup>あ</sup>合わせてその<sup>いし</sup>石をうごかして、たまっていた<sup>みず</sup>水を<sup>うみ</sup>海へながし<sup>だ</sup>出しました。  
それからというもの、とよおかはとてもうつくしいまちになりました。」

「ぼくたちの<sup>くに</sup>国は、むかしから<sup>とも</sup>友だちだったんだ。」てっちゃんが言うと、おじいさんは、にこにこしていました。

その<sup>よる</sup>夜、つかれてねむったてっちゃんは、ゆめをみました。

“테츠야, 오늘은 건강해 보이는구나. 병은 다 나아났니?” 그곳에 계시던 아저씨께서 물어보셨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가 준 약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 사실은 이 아름다운 마을에 전해오는 옛날이야기가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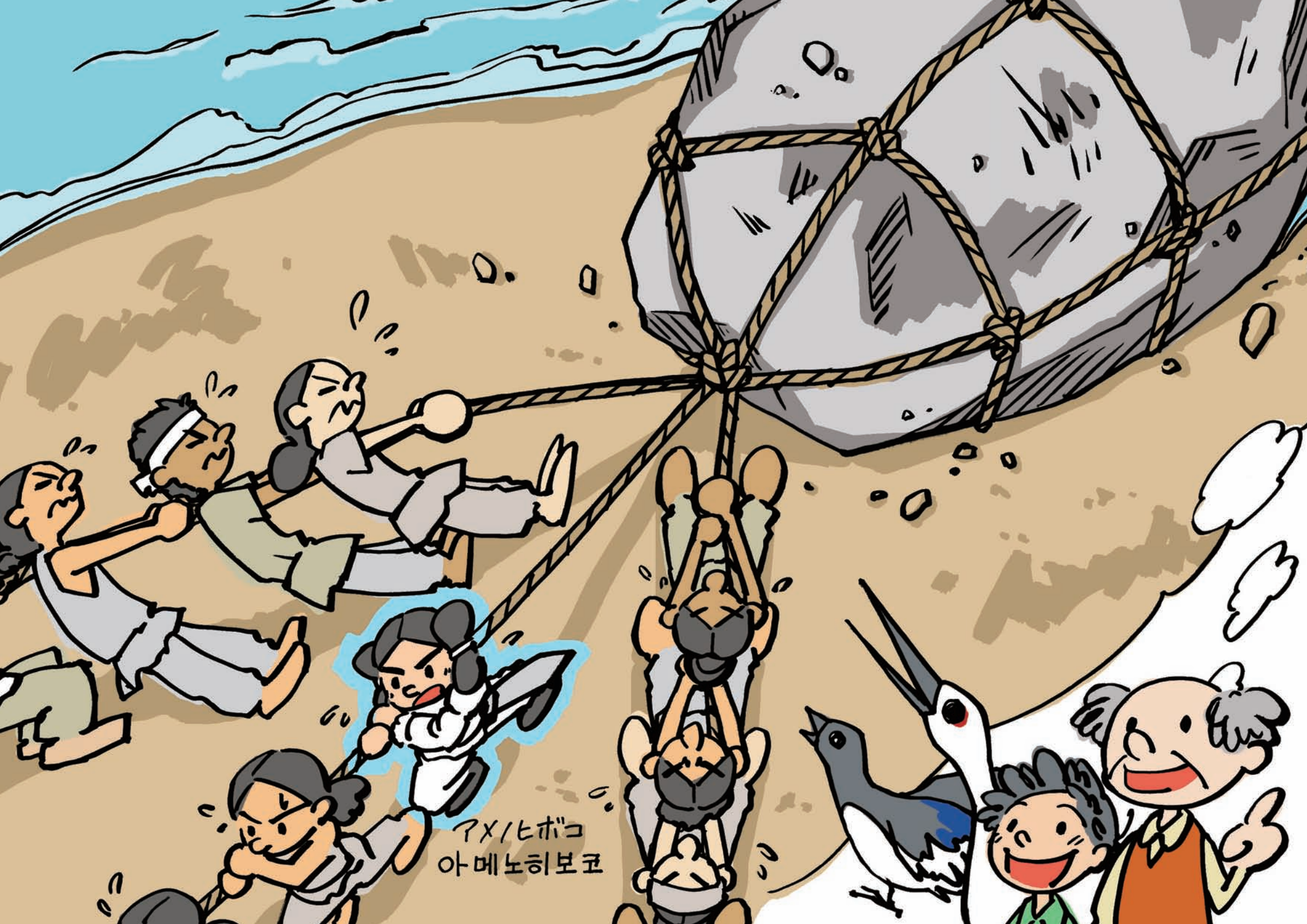
「옛날 옛적에 도요오카에는 큰 돌이 마루야마 강을 막고 있어서 항상 큰 홍수가 났단다.

그때 한국인 왕자 아메노히보코가 모두와 힘을 합쳐 그 돌을 움직여 고여 있던 물을  
바다로 흘러보냈단다.

그 후로부터 도요오카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단다.」

“한국과 일본은 옛날부터 친구였구나~!”하고 테츠야가 말하자, 아저씨는 하하하 웃으셨어요.

그날 밤, 곤히 잠든 테츠야는 꿈을 꾸었어요.



アX/ヒボコ  
아메노히보코



「チョルスくん、いつか<sup>ほんとう</sup>に<sup>あ</sup>会いに行くよ!!」

“철수야, 언젠가 꼭 만나러 갈게~!”



【豊岡市（市の鳥：コウノトリ／市の花：チューリップ）】

日本列島の真ん中西寄りに位置する兵庫県の北部の中心都市。面積の約8割を森林が占め、中央部には母なる川・円山川が悠々と流れており、多彩な四季を織りなす自然環境に恵まれています。

2005年9月には、日本で一度は絶滅した国指定の特別天然記念物・コウノトリが自然放鳥され、人里で野生復帰を目指す世界的にも例がない壮大な取組みが始まり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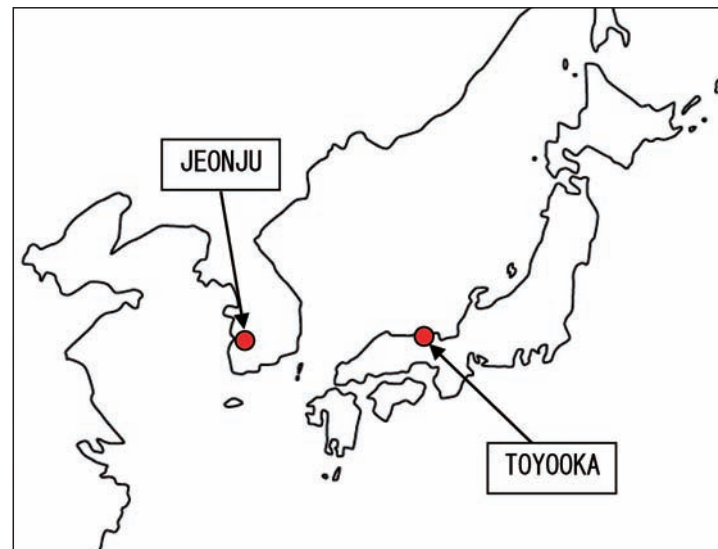
産業は農林水産業、観光業などが盛んです。特に観光業では、全国的に有名な城崎温泉をはじめ、西日本屈指の神鍋スキー場、但馬の小京都・出石城下町などを有し、年間の観光客は500万人以上にのぼっています。また、地場産業としては、全国の4大産地の一つであるかばんや出石焼などの生産が行われています。（豊岡市政要覧から引用）

【道요오카시（시의 새：황새 / 시의 꽃：튤립）】

일본 열도 중서부에 있는 호고현 북부의 중심도시. 면적의 약 80%가 산림이며 중앙에는 마루야마 강이 흐르고 사계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2005년 9월에는 일본에서 한번 멸종되었던 천연기념물 황새가 사람이 사는 마을 부근으로 야생복귀를 위한, 세계적으로 예를 찾아 볼수 없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업은 농림수산업, 관광업 등이 있습니다. 관광업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키노사키 온천을 비롯해 서일본 굴지의 칸나베 스키장, 타지마 지역의 작은 교토로 유명한 이즈시성 주변 마을 등이 있으며, 연간 관광객은 500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산업으로서는 전국 4대 산지 중 하나인 가방이나 이즈시도기 등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요오카시 정요람에서 인용)



【全州市（市の鳥：カササギ／市の花：レンギョウ）】

大韓民国の南西部に位置する全羅北道の道都で、教育、文化、経済の中心都市。市街地の東、西、南部が山に囲まれ、盆地を形成しています。国指定宝物「豊南門」や韓式家屋保存地区など歴史的遺産が市内に点在し、古都の面影を最も色濃く残す都市の一つです。

「味・趣・音の本場」として知られる全州は、3大料理の一つである全州ビビンバが生まれたところでもあり、地元の豊富な食材を生かした韓国伝統の食文化が発展しています。また、韓国の無形文化財にも指定される伝統音楽のパンソリの中心地として、「全州大私習ノリ」が毎年開かれ、韓国全土から国楽家が集い公演が行われます。「合竹扇」、「韓紙」などの伝統工芸品でも有名です。

国際映画祭、2002年ワールドカップの開催など、新しい行事も盛んに行われ、歴史と現代が調和した都市として成長を遂げています。

**【전주시 (시의 새 : 까치 / 시의 꽃 : 개나리)】**

대한민국의 남서부에 있는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이자 교육, 문화, 경제의 중심도시. 시가지의 동, 서, 남, 북이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보물 '풍남문'이나 한식가옥보존지구 등 역사적 유산이 있으며 옛 고읍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맛, 멋, 소리의 본고장' 으로서도 알려진 전주는 조선왕조 3대 요리 중 하나인 전주비빔밥이 만들어진 곳이며 풍부한 식재료를 이용한 한국 전통의 음식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된 전통음악인 판소리의 중심지로서 '전주대사슴놀이'가 매년 개최되고, 전국에서 모인 국악가들이 공연을 펼칩니다. '합죽선' '한지' 등이 전통 공예품으로 유명합니다.

국제영화제,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새로운 행사도 번창해가고 있으며, 역사와 현대가 조화된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コウノトリ】**

コウノトリ目コウノトリ科に属する鳥類の一種。全長約110cm。翼を広げると2mにも及ぶ。声は出さず、くちばしを打ち鳴らし、カタカタと音を出す。「幸せを運んでくる」という言い伝えがある。

**【황새】**

황새목 황새 과의 조류. 몸길이 110cm. 날개를 펼치면 2m에 달한다. 소리는 내지 못하며 부리를 위아래로 부딪혀 소리를 낸다. '행복을 전한다.'라는 전설이 있다.



**【カササギ】**

スズメ目カラス科に属する鳥類の一種。全長約45cm。カシャカシャやクシュクシュと早口で大きな声で鳴く。七夕伝説における織姫と彦星の間をつなぐかけ橋の役を担う鳥として親しまれている。(物語中では海を越えて日本にやって来ますが、渡り鳥ではありません。)

**【까치】**

참새 목 까마귀 과의 조류. 몸길이 45cm. 빠르게 큰 소리로 운다. 칠월칠석의 전설에서 견우와 직녀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의 새로서 사람들에게 친근하다. (이야기 중에는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오지만 철새는 아닙니다.)





## あとがき

日本国社団法人豊岡青年会議所は創立50周年を迎え、大韓民国全州青年会議所との姉妹交流は45周年を迎えます。この間、両青年会議所は親善、相互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世界の平和と繁栄に寄与する為に交流を行ってきました。

この度、姉妹締結45周年を迎えるにあたり、両青年会議所が協力し次代を担う子ども達の国際意識を高めていく事が大切であると考え、絵本を協同制作する事となりました。

豊岡市には古くから伝わる昔話に「アメノヒボコ」伝説があります。この伝説こそが日本で初めて行われた国際交流とも言われており、我々はこの身近な物語に秘められた地球市民としての精神を子どもたちに分かりやすく発信したいと考えました。

豊岡市には絶滅から野生復帰した国指定の特別天然記念物であり市鳥でもある「コウノトリ」が再び大空を舞い、又、大韓民国全州市でも市鳥である「カササギ」が悠然と美しいまちを飛翔しています。コウノトリとカササギは「幸せを運ぶ鳥」とされています。絵本ではこの2羽と子どもたちの心と心の触れ合いから築ける「<sup>つな</sup>継」こそが国の垣根を越えるもっとも大切な事だという事を訴えかけています。

こうしている今も世界中のどこかで紛争がおこり多くの人々が心を痛めています。この物語の主人公である2羽の鳥と子どもたちのように、次代を担う子どもたちが、郷土愛や異国への興味を持ち、同じ地球市民としての思いを強く抱きながら国境を越え、恒久不変な世界平和の実現にむけ未来に羽ばたいて欲しいと切に願います。

～ 国境を越え、大空に羽ばたく鳥のように ～

日本国 社団法人豊岡青年会議所 創立50周年特別事業

日本国 社団法人豊岡青年会議所・大韓民国 全州青年会議所 姉妹締結45周年特別事業  
協同制作 絵本「大空のむこうのお友だち」

絵／ヤマネカズエ

制作／日本国 社団法人豊岡青年会議所

大韓民国 全州青年会議所

後援／豊岡市教育委員会

発行所／社団法人豊岡青年会議所

兵庫県豊岡市幸町6-35（水道会館内）

TEL (0796) 22-4041

印刷／(株)北星社

発行日／2011年7月3日

## 후기

일본 사단법인 도요오카 청년회의소는 창립 50주년을 대한민국 전주 청년회의소와의 자매교류는 45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두 청년회의소는 친선, 상호이해를 깊게함과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교류해 왔습니다.

이번에 자매교류 45주년을 맞아 두 청년회의소가 협력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국제의식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책을 협동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요오카시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인 `아메노히보코`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이야말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행해진 국제교류라고 알려져 있어 우리는 이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지구시민으로서의 정신을 어린이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도요오카시에서는 멸종에서 야생복귀한 국가지정 특별천연기념물이자 시의 새인 `황새`가 다시 하늘을 날고 대한민국 전주에서도 시의 새인 `까치`가 여유롭게 아름다운 마을을 날고 있습니다. 황새와 까치는 `행복을 전하는 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두 마리의 새와 어린이들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 쌓아올린 `유대감`이야말로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선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어디에선가 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주인공인 두 마리의 새와 어린이들처럼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이 향토애나 타국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같은 지구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지니고 국경을 넘어선 불변의 지구평화 실현을 향한 미래로 나아가 활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국경을 넘어 하늘로 날개짓을 펼치는 새처럼 ～

일본 사단법인 도요오카 청년회의소 창립 50주년 특별사업

일본 사단법인 도요오카 청년회의소 · 대한민국 전주청년회의소 자매체결 45주년 특별사업

협동제작 어린이책 “하늘 저편의 친구”

그림 / 야마네 카즈에

제작 / 도요오카 청년회의소

대한민국 전주청년회의소

후원 / 도요오카시 교육위원회

발행소 / 사단법인 도요오카 청년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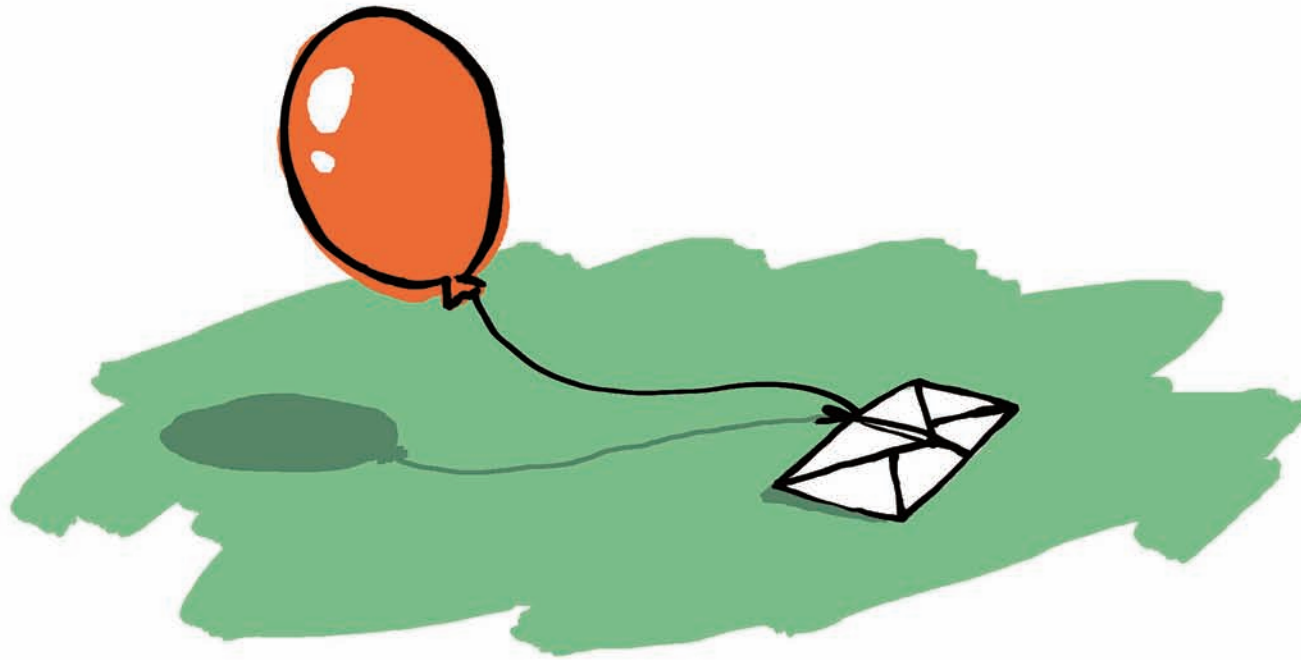
효고현 도요오카시 사이와이쵸

6-35(수도회관내)

TEL (0796) 22-4041

인쇄 / (주)호쿠세이사

발행일 / 2011년 7월3일



制作 / 日本国 社団法人豊岡青年会議所  
大韓民国 全州青年會議所

제작 / 일본 사단법인 도요오카 청년회의소  
대한민국 전주청년회의소